

천주와 하느님

교회용어연구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역사 과정을 통하여 완성으로 이끄시는 초월적 절대자를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주’(天主)라는 명칭으로 초기부터 지칭하다가 1970년대 이래 ‘하느님’이라는 순수한 한글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천주’ 명칭은 중국 명나라 때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하여 라틴어 ‘Deus’, 또는 그리스어 ‘θεός’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천주교 서적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한국 교회가 이 명칭을 수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 명칭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1583년 처음으로 ‘Deus’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1584년 루지에리(M. Ruggieri)의 「천주성교실록」, 1601년 리치의 「천주실의」의 출판과 함께 널리 사용되었다.

천지 전능하고 하늘에 계시다는 신, 곧 하느님을 가리키는 이 말은, 옛말로 ‘천부’(天父) 또는 ‘상주’(上主)라고도 지칭되기도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 천주는 천상에 있다고 상상된 최고 신을 뜻하였으며, 불교에서 제천(諸天)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의례 논쟁 이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최고 신을 천주라는 명칭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여 온 것이다.

‘하느님’ 명칭은 선사 시대 이래 우리 민족 종교 생활의 기층을 형성하는 무교에서의 최고 신인 ‘천신’, ‘하느님’ 명칭과 부합한다. 이 명칭은 ‘하늘의 님’이라는 말로부터 유래한다고 일컬어진다. ‘하늘’은 본시 고대로부터 동서 세계를 막론하고 인간들로부터 외경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우리 민족은 생성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하늘과 각별한 관계를 깊이 가지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에게 하늘은 단순한 공간 이상의 초월적 실재의 의미를 지닌다.

하느님의 호칭은 통일 신라 및 고려조에 이르러 삼국 시대의 굽뚝뚝삼신의 상상을 한데 묶어 ‘한울님’이라 한 듯하고, 고려조 이래로 천지 신명을 호칭할 때 ‘님’을 붙여 인격화하여 “한울님”이라 한 듯하며, 조선조에 들어와서 지상신이 “하느님”이라고 지칭되기에 이른 것이다. 말하자면 하느님 명칭은 굽-뚝-뚝-한울님-하느님의 변화 과정을 밟으며 정착되었는데, 이 명칭의 호칭만 시대에 따라서 다를 뿐, 그 본질적 의미는 동일하게 머물렀다고 간주된

다. 즉 이 명칭은 빛과 열을 제공하는 하늘의 신을 가리킨다. 이 하느님이 유교, 불교, 도교의 전래와 함께 보다 풍부한 내용을 지니기에 이르렀다. 이 하느님 개념은 유교의 ‘천(天) 사상을, 불교의 ‘제석천’ 신앙을, 도교의 ‘옥황 상제(玉皇上帝) 상님을 수용하면서 보다 포괄적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된 것이다.

하늘에 대한 천신 신앙으로부터 유래하는 하느님 개념이 만물의 창조주이고 구세주이며, 완성주로서의 그리스도 신앙의 신 개념과 부합되어 오늘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1970년 프로테스탄트 교회와의 공동 성서 번역에서 그리스도교의 신 명칭을 ‘하느님’으로 정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별 이의없이 통용되고 있다. 하느님 용어의 어원과 의미로 미루어 보아 그리스도 신앙의 신을 우리말로 적절히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천주’와 ‘하느님’ 명칭은 앞으로도 그리스도교의 신을 나타내는 공식 용어로 계속 통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 서적이나 학술 서적에서 두 명칭이 적절하게 혼용되거나 분리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무리가 없을 텐데, 전례 의식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는 문제로 남는다. 이 문제는 광범한 신자 계층을 상대로 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동반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신과 성령

삼위일체의 제 3 위격 ‘ Spiritus Sanctus ’는 교회의 공식 기도서와 전례 의식에서 오늘날까지 ‘성신’으로 정해져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6,70년대 이래 일반 교리서나 학술 저서와 논문에서, 그리고 특정 신심 단체 등에서 ‘성령’으로 호칭하는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전례위원회에서는 현행 명칭인 ‘성신 강림 대축일’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변경 사용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삼위일체의 제 3 위격을 뜻하는 ‘ Spiritus ’ (spirit) 용어는 우리 말로 ‘신’(하느님)으로 번역되는 deus(god)와는 달리 ‘영’(靈), 또는 ‘정신’(精神)으로 학술적으로 더 많이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영’이 하느님의 열, 숨, 입김, 바람과 영을 뜻하는 성서 용어 πνεῦμα, πνεῦμα를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간주한다.

또한 삼위일체의 제 1 위격이 ‘성부’로서, 제 2 위격이 ‘성자’로서 각각 하느님 위격이면서 하느님을 뜻하는 ‘신’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로 위격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제 3 위격만을 ‘성신’으로 사용하여 위격 명칭에 ‘하느님’의 다른 용어를 택하는 것은 위격 명칭에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제 3 위격은 용어의 본연의 학술적 의미와 위격 명칭의 조화면에서 ‘성신’보다는 ‘성령’으로 확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축일 명칭 역시 ‘성령 강림 대축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